

# 지역 대형 사업장 임단협 마무리

기아자동차·금호타이어·현대삼호重

큰 충돌 없이 타결…지역경제계 환영

기아자동차·금호타이어·현대삼호重 중공업 등 광주·전남지역 대규모 사업장이 올해 임단협을 마무리했다. 부분 파업 등 갈등은 있었지만 예년에 비해 극단적 충돌 없이 해결됐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기아차 광주공장은 62만 대 증산 프로젝트 추진에 속도를 내게 됐고, 금호타이어도 내년 워크아웃 조기 출입에 청신호가 켜졌다.

2일 광주·전남지역 산업체에 따르면 지역 대규모 사업장의 임단협이 추석을 앞둔 지난 28일 모두 타결됐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이날 김창규 사장과 이광근 노조 대표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2 임단협 합의안을 공식 조인했다.

노사는 조인식에서 “이번 임단협

합의를 계기로 그동안의 갈등을 쟁고 워크아웃 조기 출입을 위해 노사가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전날 광주·곡성·광주공장 조합원 3280명을 대상으로 천반투표를 벌여 임금 부문 52.8%, 단협 부문 54.6%의 찬성으로 임단협의안을 가결했다.

임단협 주요 내용은 ▲기본급 4만8000원 인상 ▲격려금 300%+300만원 지급 ▲국가품질혁신상 추진 격려금 30만원 ▲신종 선박 성공 견조 격려금 40만원 ▲안전문화 정착금 10만원 지급 ▲정년 만60세로 2년 연장 등이다.

기아자동차 노사는 ▲기본급을 동결하는 대신 생산잔여금으로 250만원 +1개월치 급여의 50% 지급 ▲경쟁사 임금·복지 조사를 위한 노사공동 조사위원회 운영 ▲워크아웃 기간 기본급 5%·상여금 200% 반납 유지해 출입 즉시 환원 ▲불법 행의행위 관련 민·형사상 책임 면제 등이다.

임단협이 마무리됨에 따라 금호타이어는 노사 갈등을 벗어나 워크아웃 조기 출입에 힘을 모을 수 있게 됐다.

광주·전남지역 대규모 사업장이 임단협을 속속 마무리하자 지역사회와 경제계는 크게 환영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현대삼호중공업도 지난 27일 임단협을 마무리했다.

현대삼호중공업 노조는 이날 조합원 천반투표를 통해 임단협 합의안을 가결했다.

합의한 임단협 주요 내용은 ▲기본급 4만8000원 인상 ▲격려금 300%+300만원 지급 ▲국가품질혁신상 추진 격려금 30만원 ▲신종 선박 성공 견조 격려금 40만원 ▲안전문화 정착금 10만원 지급 ▲정년 만60세로 2년 연장 등이다.

기아자동차 노사는 ▲기본급을 동결하는 대신 생산잔여금으로 250만원 +1개월치 급여의 50% 지급 ▲경쟁사 임금·복지 조사를 위한 노사공동 조사위원회 운영 ▲워크아웃 기간 기본급 5%·상여금 200% 반납 유지해 출입 즉시 환원 ▲불법 행의행위 관련 민·형사상 책임 면제 등이다.

임단협이 마무리됨에 따라 금호타이어는 노사 갈등을 벗어나 워크아웃 조기 출입에 힘을 모을 수 있게 됐다.

광주상공회의소도 성명을 내고 “기아차와 금호타이어 노사가 서로 상생하고 양보하며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임단협 타결을 끌어냈으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이번 대타협을 계기로 기아자동차의 내년 62만대 증설 프로젝트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고, 금호타이어도 내년 워크아웃 출입 목표 달성을 청신호가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두 기업 협력업체도 상생의 희망을 품게 되는 등 지역의 이미지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기아차 노사는 “이번 대타협을 계기로 기아자동차의 내년 62만대 증설 프로젝트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고, 금호타이어도 내년 워크아웃 출입 목표 달성을 청신호가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두 기업 협력업체도 상생의 희망을 품게 되는 등 지역의 이미지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기아차 노사는 ▲주간연속2교대 근무 내년 3월부터 도입 ▲기본급 9만8000원 인상(기본급 5.3%, 호봉승급 분포 포함) ▲성과급 350%+600만원 지급 ▲생산·관제항상 등 특별 격려금 150%+360만원(재래시장상품권 10만원 포함) 지급 등이다.

광주·전남지역 대규모 사업장이 임단협을 속속 마무리하자 지역사회와 경제계는 크게 환영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금호타이어 F1마신 로드쇼

금호타이어(대표이사 김창규)는 '2012 연암 F1코리아 그랑프리'를 앞두고 최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금호타이어를 장착한 F1마신 게릴라 로드쇼를 개최했다. 로드쇼는 서울·광주·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오는 6일까지 펼쳐진다.

(금호타이어 제공)

## 기아차 ‘세계 100대 브랜드’ 진입

87위…국내기업중 삼성전자·현대차 이어 세번째

기아자동차가 ‘세계 100대 브랜드’에 첫 진입했다.

기아차는 2일 세계 최대 브랜드 컨설팅 회사인 ‘인터브랜드’가 발표한 ‘2012 세계 브랜드’에서 40억8900만 달러(약 4조6000억원)의 브랜드 가치를 기록해 87위에 오르며 세계 100대 브랜드에 처음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기업 중 삼성전자(9위), 현대자동차(53위)에 이어 세번째 순

위다. 기아차 브랜드 가치는 2007년 11억달러에 불과했지만, 5년 만에 273% 급성장했다.

특히, 기아차는 지난해보다 50% 성장했다. 평균 18%, 아우디 17% 등 100 대 브랜드에 포진한 세계 13개 자동차 브랜드가 평균 11.2% 성장한 것과 비교하면 독보적인 고성장이다.

기아차는 그동안 부단히 추진해온

품질 경영과 디자인 경영, 2005년 정몽구 회장이 신년사를 통해 글로벌 경영 원년을 선언한 이후 글로벌 브랜드 가치 극대화를 위한 브랜드 전략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브랜드 가치 증가는 곧 판매 증대로 이어졌다. 기아차는 지난해 유럽 재정위기와 세계 경기 침체로 자동차 산업의 성장세가 둔화된 상황에서도 국내외 시장에서 전년대비 19.2% 증가한 총 253만9403대를 판매했다.

기아차는 그동안 부단히 추진해온

품질 경영과 디자인 경영, 2005년 정몽구 회장이 신년사를 통해 글로벌 경영 원년을 선언한 이후 글로벌 브랜드 가치 극대화를 위한 브랜드 전략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브랜드 가치 증가는 곧 판매 증대로 이어졌다. 기아차는 지난해 유럽 재정위기와 세계 경기 침체로 자동차 산업의 성장세가 둔화된 상황에서도 국내외 시장에서 전년대비 19.2% 증가한 총 253만9403대를 판매했다.

기아차는 그동안 부단히 추진해온

효성, 고기능 원사로 불황 넘는다

패션브랜드·유통업체 공동 마케팅 매출 늘려

효성이 유령 패션브랜드와 대형 유통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기능성 고급 원사(原絲) 매출을 늘리고 있다.

효성은 올해부터 속옷 전문업체인 쿠종은사람들과 함께 땀을 빼 르게 흡수해 말리는 ‘흡한속건(吸

한速乾)’의 기능성 원사인 ‘에어로풀’을 적용해 속옷을 출시하고 공동마케팅을 펼쳐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효성측은 2일 “피부에 밀착해 편안하게 해주는 기능성 속옷에 대한

이유이다.”며 “온라인 매출은 100%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효성은사람은 “온라인 매출은 100%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매